

2. 청년운동의 분화와 확산(1923~1926)

1) 노동·농민운동과 사상운동의 발흥

1922년 말 순천 사회운동계에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주의 수탈에 저항하는 소작농민들의 집단행동이 연이어지면서 각 면에서 농민단체가 결성되었다. 1922년 12월 말 낙안면소작대회, 쌍암면농민대회가 조직된 이래 1923년 1~2월 초까지 각 면에서 농민단체가 결성되었고, 월등면에서도 6월 이전에 농민대회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 2월 11일에는 면 농민단체를 토대로 순천군농민대회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2월 28일에는 순천·광양·보성·여수의 농민단체들이 순천 환선정에 모여 남선농민연맹을 창립하였다.¹⁾ 1923년 5월 10일에는 순천 최초의 노동단체인 순천노동대회가 결성되었다.

1922년 말부터 순천군에서 급격하게 고조된 농민들의 투쟁과 단결을 앞장서서 이끌어간 것은 이영민·이창수·박병두·김기수 등이었다. 이들은 농민·노동운동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청년운동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인물들이었다. 박병두는 1883년생으로 한학을 수학했으며, 1922년 이래 동아일보사·조선일보사의 지방기자를 지내면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특히 농민운동 부문에서 빼어난 지도력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20여 두락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기수는 1888년생으로 1923년경부터 조선일보사 구레 주재기자·순천지국장, 시대일보사 순천 주재기자 등을 지냈으며 이무렵부터 서면 및 순천군 사회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박병두와 김기수의 활동공간은 순천군 일원을 넘어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는데, 두 사람은 1923~1926년에 남선농민연맹·전라노동연맹·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기수·박병두·이영민·이창수 등은 1923년 중반~1924년 초반에 사회주의사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그들이 사상단체인 순천연학회(研學會), 순천무산자동맹회를 결성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사상단체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활동가들의 결집체로서, 표면적으로는 신사상의 연구와 보급을 내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사상과 전술을 연구·보급하면서 비밀공산주의단체의 표면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순천연학회는 1923년 6월 4일 창립되었는데, 신문·잡지·수양에 관한 서적과 사조에 관한 서적을 공동 구독하기로 하였다. 연학회는 전남 최초의 사상단체였다. 창립 당시 상무위원은 유목룡·이홍만(李洪萬)·채갑묵(蔡甲默)·김양수·김광수(金光洙)·이창수·이정호·김봉수(金鳳洙) 등이었다. 이외에 장소선정위원으로 고희철(高羲喆)·유목룡·김태진(金泰鎭)이, 서적전무(專務)위원으로 길승익(吉昇翊)·이영민이 선정되었다. 김양수·이창수·이영민·이정호는 순천청년회·면려청년회 등에서 간부로 활동한 바 있었고, 김봉수·유목룡·김태진·김광수는 이후에 노동·농민·청년운동의 지도부로 활약했다.

1) 순천 농민운동의 경과에 대해서는金森襄作, 「朝鮮農民組合史—1920年代の晋州·順天を中心にして—」, 『조선사총』 5·6합병호, 1982(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수록); 大和和明, 「1920年代前半期の朝鮮農民運動—全南順天郡の事例を中心に—」, 『歴史學研究』 502, 1982(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1984 수록); 이철우, 「1920년대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농민항쟁과 법」상, 『법사학연구』10, 1989; 한송주, 「순천소작투쟁」上·中·下, 『藝鄉』 52~54, 1989; 김점숙, 「192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I·호남편, 여강, 1993 참조.

1924년 1월 31일에는 순천무산자동맹회가 창립되었다. 무산자동맹회는 연학회보다 사상적 지향을 더욱 분명하게 표출하면서, 1920년대 중반 순천 사회운동의 발전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무산자동맹회의 준비과정에서 순천경찰서는 회명이 불온하다면서 개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회원들은 회명 고수를 천명하였다. 무산자동맹회는 순천농민대회연합회와 함께 각 면 농민대회의 총회 등을 이용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농민의 단결과 투쟁의 필요성을 계몽·선전하면서 농민의 계급의식을 고취하였다. 무산자동맹회의 핵심 회원은 강태운(姜泰允)·김기수·박병두·이영민·이창수·박정래(朴正來)·장국현 등이었다. 1925년 1월 이영민은 후에 조선공산당 창건을 주도하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화요회그룹)과 함께 사상운동 잡지 『화화(火花: 불꽃)』를 발행하기 위한 화화사(火花社)를 받기하기도 하였다.

김기수·박병두·이영민·이창수는 1924년 9월경 광양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공산주의 비밀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이영민과 박병두는 1925년 3월 26일 경성에서 비밀리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조직발기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이영민은 조선공산당의 순천군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자 순천·광양의 사회주의자들로 조직되었던 비밀단체는 조선공산당의 지역 세포조직으로 개조되었다. 1926년 3월 김기수는 조선공산당 전남도기관(이하 전남도당으로 약칭)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었다.

1925~1926년 중반 순천의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으로 약칭) 세포조직은 이영민(책임)·이창수·박병두로 구성되었다.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고려공청으로 약칭)의 세포조직은 정순제(鄭淳悌)·허영수(許永壽)였다.²⁾ 정순제는 1903년경에 출생한 광양의 청년활동가로서 1925년 여름부터 시대일보사 순천지국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광양·순천을 오가면서 청년운동을 지도하였다. 허영수는 1901년경에 태어나 목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운동·청년운동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김기수·박병두·이영민·이창수·정순제·허영수 등이 일제시기 공산주의운동의 주요 분과 가운데 화요회그룹에 가담한 데 비해 북풍회그룹에 가담한 활동가도 있었다. 1924~1925년 시기에 북풍회의 잡지 『북후대』(북풍회의 전신인 북성회의 기관지) 혹은 『사상운동』의 순천주재기자로 활동하던 김계일·정성기·김익두·김성목 등이 바로 그들이다. 김계일과 정성기는 순천무산자동맹회 회원이었고, 김익두는 순천면농민대회·순천농민대회연합회·순천노동대회 간부로 활동하였다.

화요회그룹과 북풍회그룹에 가담한 순천지역 활동가들은 순천의 각 부문운동에서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 점은 조공 조직준비그룹이 계획하였던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에 대한 순천지역 대중단체의 입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 1925년 4월까지 순천의 22개 단체가 찬성입장을 표명하였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1개 단체에 불과했다.⁴⁾

2) 조선공산당·고려공산청년회의 순천지역 조직에 관해서는 신주백,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조공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II·호남편, 여강, 1993; 박철하,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과 활동(1920~1928)」,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3) 1925년 4월에 개최하기로 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는 조선공산당준비그룹(화요회그룹과 북풍회그룹이 연합하여 구성)이 계획하였으며, 서울청년회그룹은 그것의 개최를 반대하였다. 비합법 영역에서 조선공산당준비그룹과 그 반대그룹으로 분열된 것을 반영하여 합법 공개영역에서는 각 부문 대중단체가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분열되었다.

4) 찬성단체는 ① 사상단체-순천무산자동맹회 ② 청년단체-송광청년회, 순천노동청년회, 순천청

노동운동·농민운동·사상운동·사회주의운동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청년운동 영역에서는 농민청년·노동청년의 조직화가 진전되었으며, 순천청년회는 내부 혁신을 단행하였다.

년회 ③ 농민단체－남선농민회연맹회, 순천농민대회연합회, 낙안면·도사면·서면·송광면·순천면·쌍암면·월등면·주암면·황진면농민대회, 해룡면소작인동맹회, 순천외룡농민회 ④ 노동단체－순천노동연합회, 순천목공조합, 순천석공조합, 순천철공조합, 순천토공조합 등이며, 반대단체는 쌍암청년회였다.